

군산 유리공장 파업 돌파구 보일까

한준수 부시장, 중재자 역할 나서... 현장방문 노사 양측 의견 청취 등 상생방안 모색

본격적인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한준수 군산부시장은 한국유리 군산공장을 찾아 파업 현장 파악에 나서며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유리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현장 생산직 조합원 1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재논의(폐지)등을 요구하는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한 부시장의 행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위기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흥신 군산시장의 친 기업사랑 1인 2사 후견인제 추진책의 일환이다.

한 부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친 기업사랑 후견인제에 따른 기업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후견인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준수 군산부시장은 3일 한국유리 군산공장을 찾아 파업 현장 파악에 나서며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한부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협력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며, "시에서도 안정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기업인

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간부공무원 140여명

이 280여개 업체와 결연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기업 애로 해소 추진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산=장현기

유조선 오염사고시 손배해야

최대 3배 방제비용 부과

200이상 유조선에서 오염사고나면 방제비용의 3배가 부과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제(防除)작업의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8월 유예 홍보기간을 거쳐 9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법에 의해 의무보험가입 대상인 200t 이상의 유조선과 유조선부선, 1,000t 초과 선박과 저장용량 300㎥ 이상의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자(회사)에게 오염물질을 제거·수거·처리하는 방제작업 비용을 3배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오염원인자 부

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에 따라 기름유출, 선저폐수 무단방류와 같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된 경비합정 연료비와 소모된 방제 물품 등 실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시켰다.

해경은 "유류오염손해배상법" 등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방제비용을 산정,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신성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선박과 시설을 대상으로 방제비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 상반기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2건 4371로 오염 행위자에게 232만원의 방제비용을 부과했다. /군산=장현기

익산, 폭염 속 보행자 오아시스 '그늘막' 설치

익산시는 연일 폭염경보 발령으로 찜통 더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햇빛을 잠깐 피해 갈 수 있도록 곳곳에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늘막은 익산역을 비롯한 이동 인구가 많은 영등동, 모현동, 마동, 동산동, 원대병원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30개소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오래 서 있어야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야외라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을 비로 쬐어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폭염대비 그늘막'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돼 늦여름이 끝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흐르는 땀을 잠시 식혀줄 예정이다. 그늘막 크기는 지름 3~5m 정도로



시민들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머무르게 충분히 크키다.

설치된 그늘막의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그늘막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설치 지역을 매일 순찰을 실시하며, 강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늘막을 접고 날씨가 갠 후에 다시 펼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사망자 40% ↓ 목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제3차 익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7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전라북도에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 확정된 사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기본법에 따라 2017~2021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기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

교통 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이번 계획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의 도로교통 부문 교통사고 감소대책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병행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 2015년 34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1년에는 20명으로 4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대만 청춘들, 군산 누비다

교환학생, 시청·근대역사문화거리 등 탐방

대만의 꽃보다 청춘이 3일 오후 군산시청을 찾았다.

2009년 군산대학교와 학술교류협약을 맺은 이래로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대만사범대학교와 대만중흥대학교에서 찾아온 교환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6월부터 군산에서 체류하며 언어·문화 연수중인 대만 젊은이들의 군산시청 첫 방문이다.

이날 학생들은 군산시청 및 의회를 방문하고 군산시청과 시의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대만에서 찾아온 9명의 청춘들과 담화를 갖고 대만과 공유하고 있는 근대관광지를 화두로 공감대를 형성해 30여

분 가람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 부시장은 당일 군산시청을 방문하고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찾는 학생들에게 대만과 군산시의 근대건축물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 탐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또한 전국 5대 공립박물관 중 하나인 근대역사박물관과 4개의 섬을 연결하는 고군산군도, 바다 위의 만리장성인 새만금을 소개하며 귀국 후에도 대만의 군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 교환학생은 "대만과 군산이 많이 닮아있어 이곳에서 지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귀국 후에도 군산에서 지냈던 즐거운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군산시 홍보대사로 활약할 것을 다짐했다.

대만 교환학생들은 한 부시장과의 담화를 마치고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한국 선진 행정시스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원업무 보는 군산시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견학했다.

군산은 찾은 대만 대학생들은 고즈넉한 슬로우시티-군산의 매력이 묻어나는 근대역사문화유적지 일원을 걸으며 군산의 한 여름날을 뚝뚝 만끽했다.

한편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그 지형이 고구마를 닮아 친근한 대만은 아시아의 관광대국 중 하나로 인천공항에서 약 2시간 10분의 비행을 통해 도달하는 한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몇 년 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 통해 매력을 알리며 한국인들이 쉽게 찾는 식도락 가득한 국외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군산=장현기

익산시-하림그룹 간담회 개최

3일 오후 익산시청 부시장실에서는 하림그룹과 익산시가 상생발전하기 위한 연계사업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철모 부시장을 비롯해 하림그룹의 정호석 이사, 6개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상생발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는 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하림, ㈜하림식품, ㈜HS푸드의 직원 채용 시 익산시민 우선 채용과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하림생산물 포장지에 홍보문구 삽입 등을 적극 요청했다.

하림그룹의 정호석 이사는 "익산시의 협조사항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익산시의 상생발전 하겠다"고 했다.

김철모 부시장은 "시는 '산업 활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